

[로스쿨 소식]

최근 로스쿨 지원자 늘어나자 1건당 2만~3만원 수준에 거래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김모(27)씨는 로스쿨 지원할 때 냈던 자기소개서가 온라인에서 사고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호기심에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글을 올리자 곧바로 로스쿨 지원자 4명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씨는 지원자 한 사람당 3만원을 받고 자기소개서를 보내줬다. 김씨는 “자기소개서를 팔아도 되나 꺼림칙했지만 로스쿨 지원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팔게 됐다.”고 했다.

로스쿨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서류도 온라인에서 매매되고 있다. 로스쿨 지원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개 채팅방이나 온라인 카페가 ‘거래 장소’다. 지원자들이 “○○대학교 합격자 자기소개서 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 쪽지나 비공개 댓글로 일대일 거래를 한다. 자기소개서 가격은 건당 2만~3만원 선이다.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 지원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구하기도 한다. 자신의 학점,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가 비슷한 합격자를 찾는 것이다. “LEET 성적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이한 定性

(정성평가에 도움이 되는 경력 등)이 없으면 좋겠다.” 등 조건을 내건다. 한 서울 사립대 로스쿨에 지원한 박모(26)씨는 “법학적성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고 특별한 이력이 없어서, 저 LEET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원한다는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렸다.”고 했다.

돈 주고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구하는 이유에 대해 로스쿨 지원자들은 “마땅히 정보를 구할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점 관리를 잘하고 LEET를 잘 치르는 것 이외에 준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 1~2학년생들은 로스쿨 합격자들이 대학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참고해 학부 때 경력 관리를 한다.

서울 지역 대학에 다니는 이모(20)씨는 최근 학교 동아리인 법경제학회에 가입했다. 이씨는 학부 졸업 후 같은 학교 로스쿨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이씨는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사서 보니 국제법 관련 수업을 듣고, 학내 법경제학회에서 활동했다고 돼 있더라.”며 “자기소개서를 참고해서 대학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